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겨울채소 가격안정 대응방안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거시경제 동향

2012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

현장 여론 조사

(KREI 리포터·통신원)

흑한기 농작물 피해와 농촌주민 교육 실태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농림수산물 수출 실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_1

겨울채소 가격안정 대응방안

※ 본 자료는 2013년 1월 7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농식품부, 겨울채소 가격 안정에 총력」/1월 4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물가안정책임관회의 개최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최근상황

○ 최근 잦은 대설과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배추 등 채소류의 생육이 부진하여 설 성수기를 앞두고 서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겨울배추]** 김장철 이후 12월 초부터 **지속된 한파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현재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2.5배, 소비자가격은 2배 정도 높은 수준**

※ 도매가격(1월 상순): (평년) 1,332원/포기/상품 → (금년) 3,500(163% ↑)

※ 소비자가격(1월 상순): (평년) 2,118원/포기/상품 → (금년) 3,938(86% ↑)

- **[설 성수품목]** 대파와 시금치 당근 등은 한파 등으로 수확이 지연되어 최근 가격은 **전·평년보다 높은 수준**

※ 대파 소비자가격(1월 상순): (평년) 2,474원/kg/상품 → (금년) 3,458(40% ↑)

※ 시금치 소비자가격(1월 상순): (평년) 4,608원/kg/상품 → (금년) 6,860(49% ↑)

※ 당근 소비자가격(1월 상순): (평년) 2,699원/kg/상품 → (금년) 5,505(104% ↑)

○ 또한, 1월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배추, 당근, 대파 등 겨울채소류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음.

❑ 정부대책

○ 농어업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 폭설·한파 등의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응급복구와 기술지원단을 파견

- 직접 현장에서 동절기 농산물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지원요청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대책 마련

※ 초동대응팀, 재해복구팀, 원예특작팀, 축산분야팀, 양식수산팀

- 합동지도점검반(7개반, 30명) 운영
 - 생산·출하 및 수입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배기술지도 강화
- 중국 등 주요국 작황 및 가격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
- 가격안정을 위해 **수급조절용 물량 공급**
 - 겨울배추 8천 톤(정부 3, 농협중앙회 5) 중 6백 톤을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등을 통해 시중가 보다 40% 정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
 - ※ 우선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1.7일부터 공급, 전통시장 등은 수요 파악이 완료 되는대로 공급을 시작하여 설 성수기(1.28~2.8)에는 공급 물량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
- 물가안정 방안으로 **옥외가격표시제 시행(2013.1.31일)**
 - 관계기관 홈페이지, 업주 대상 위생교육, 협조 공문 등을 통해 제도 개요, 세부실시요령 등을 지속 홍보하여 조기 실시 유도
 - 현장점검단을 운영하여 제도 도입과정에서 개인서비스 요금의 부당·편승 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점검
 - ※ 옥외가격표시제도: 소비자들이 개인서비스업소 이용 전에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유도 및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주요 농정 이슈_2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 본 자료는 2013년 1월 3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혜택 받는다」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농지연금제도

-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에 기여하여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능 유지를 위해 도입
- 가입자각: 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 이하
- 지급방식: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종신형), 일정기간 매월 지급(기간형: 5년, 10년, 15년)
 - ※ 70세, 2억 원(종신형)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 가입 시 776천 원/월 지급
- 담보농지의 활용: 담보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음.
- 운영실적: '12년도까지 2,202명이 가입하였으며, 담보농지 2억 원(1ha) 가입자의 경우 연 14만 원 감면 혜택을 받음.

□ 개정내용

- **2013.1.1일부터 농지연금 가입자 담보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 주택연금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25%)되고 있으나, 농지연금은 재산세 감면규정이 없어 농지연금 제도를 도입한 '11년도부터 조세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
 - 이에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토지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공제**하기로 개정
- 이번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지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거시경제 동향

2012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

※ 본 자료는 2013년 1월 10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수출물가지수

- **2012년 12월 수출물가**는 유가 및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0.5% 하락**(전년 동월대비 6.2% 하락)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3.0% 하락**(전년 동월대비 17.9% 하락)

<주요 농림수산물 수출 품목의 등락>

단위: %

구 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농림수산물	상승	배 1.7	
	하락	참치 -6.3, 조개 -2.5, 김 -0.4,	참치 -24.5, 배 -4.8, 조개 -8.8, 김 -1.5

- 석유화학·고무제품이 올랐으나 1차금속제품, 운송장비제품 등이 내려 **전월대비 0.5% 하락**(전년 동월대비 6.1% 하락)

<수출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2.9월	10월	11월	12월	'12.9월	10월	11월	12월
총 지 수	1000.0	0.3	-1.9	-2.6	-0.5	-1.9	-5.2	-5.5	-6.2
		<0.6>	<-0.4>	<-0.7>	<-0.5>	<-2.0>	<-0.6>	<-1.1>	<-0.2>
농 립 수 산 품	5.1	-5.2	-3.7	-4.1	-3.0	-11.7	-15.2	-15.2	-17.9
광 산 품	994.9	0.3	-1.9	-2.6	-0.5	-1.9	-5.1	-5.4	-6.1
석유화학·고무제품	193.1	1.1	-2.1	-3.3	0.1	-1.6	-3.8	-4.1	-3.9
1차금속제품	72.8	1.1	-2.8	-3.1	-1.5	-9.6	-11.2	-11.2	-11.2
일반기계·장비제품	66.6	0.3	-0.8	-1.9	-0.8	2.6	-1.3	-1.3	-3.3
전기장비제품	53.8	-0.3	-1.4	-2.1	-0.6	-1.7	-3.3	-3.7	-5.5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제품	361.5	-0.6	-2.2	-2.2	-0.3	-1.4	-5.8	-6.6	-7.6
운송장비제품	144.4	0.2	-1.8	-1.9	-0.5	-0.1	-5.1	-4.9	-6.1

주: < >내는 계약통화기준임.

□ 수입물가지수

- **2012년 12월 수입물가**는 유가 및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1% 하락**(전년 동월대비 8.8% 하락)
- (원자재) 옥수수, 밀 등 농림수산물과 원유, 유연탄 등 광산품이 내려 **전월대비 1.2% 하락**(전년 동월대비 10.0% 하락)
-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1.5% 하락**(전년 동월대비 3.3% 하락)

<주요 농림수산물 수입 품목의 등락>

단위: %

구 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농림수산물	상승	양모 1.3, 과일 8.4	대두 18.3, 밀 13.0
	하락	옥수수 -3.8, 밀 -4.4, 천연고무 -1.7	천연고무 -24.1, 원면 -14.9, 냉동어류 -18.4

- (중간재) 석유 및 화학제품,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제품 등이 내려 **전월대비 0.9% 하락**(전년 동월대비 8.3% 하락)

<수입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2.9월	10월	11월	12월	'12.9월	10월	11월	12월
총 지 수	1000.0	0.9	-3.3	-2.8	-1.1	-2.4	-6.4	-7.6	-8.8
		<1.4>	<-1.8>	<-0.9>	<-0.0>	<-2.5>	<-1.9>	<-3.4>	<-2.4>
원 자 재	278.2	0.9	-5.1	-3.2	-1.2	-0.2	-6.0	-9.4	-10.0
농림수산물	30.2	-1.2	-0.8	-1.4	-1.5	-9.2	-9.4	-5.6	-3.3
광 산 품	248.0	1.1	-5.5	-3.4	-1.2	0.8	-5.7	-9.8	-10.7
중 간 재	556.7	0.9	-2.1	-2.7	-0.9	-4.7	-7.2	-6.8	-8.3
석 유 제 품	34.8	4.2	-2.7	-3.2	-1.0	3.7	4.1	3.5	-1.2
화 학 제 품	87.4	1.1	-1.1	-2.1	-0.7	-4.8	-7.5	-5.4	-4.9
비금속광물제품	14.0	0.7	-4.8	-5.0	-1.9	-6.9	-13.8	-13.8	-16.1
1차 철 강 제 품	59.4	-1.2	-3.3	-3.5	-0.5	-10.6	-13.4	-13.0	-14.3
1차비철금속제품	39.3	6.2	-1.6	-4.1	0.9	-6.4	-4.1	-5.8	-4.4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제품	154.6	-0.7	-2.2	-2.1	-1.5	-4.2	-9.3	-9.5	-11.7
자 본 재	98.6	0.4	-1.8	-2.4	-1.4	-1.0	-5.9	-5.9	-7.9
소 비 재	66.5	1.7	-1.5	-1.7	-0.9	0.2	-3.1	-3.1	-4.7

주: < >내는 계약통화기준임.

□ 옥안기(폭설) 농작물 피해 실태

○ 폭설과 흑한으로 하우스 농가 피해 속출

- 하우스 보온 벽 및 방풍 벽 설치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올해 유난히 추운 날씨로 작황이 좋지 않고 상품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음.
<경북 영주, 김기원>
- 부산 서부 쪽과 강서 쪽에 폭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음. 지금 피해 복구를 위해 농촌사랑 봉사단 등이 나서 애를 쓰고 있음. 폭설로 인한 하우스 피해가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는 강추위로 농작물 동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부산 기장, 최시훈>
- 흑한으로 인해 눈에 뿌린 청보리, 호밀, 헤어리비치가 발아되자마자 얼어 죽고 후작 작물은 씨를 뿌려도 발아가 안 되어 겨울 농사가 큰 차질을 빚고 있음.<전남 화순, 나중주>
- 우리 지역은 겨울철 달래를 하우스에 주로 재배하는데 흑한으로 생육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충남 당진, 남도성>
- 충북 지역에는 계속되는 한파와 폭설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함. 인삼밭 시설이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해 쓰러지는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복숭아나무의 동해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특히 과수 농가에서는 눈이 자주 쌓여서 정지 전정 작업을 할 수가 없으므로 일이 늦어져 영농에 차질이 발생함.<충북 괴산, 박종임>

○ 폭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에 의문

- 시설 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자연재해 피해보상 대상이 되려면 정부에서 지정한 영농자재를 사용해야 함. 이 때문에 규격제품이 아니면 폭설로 인한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복구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농촌지역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규격제품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상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봄.<경남 김해, 김병철>

□ 농한기 농촌 교육 실태

○ 농촌주민 대부분 농한기에 다양한 교육 원해

- 농한기에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전혀 없는 상태임. 그나마 여유로운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사에 대한 각종 교육을 받고 싶으나, 마땅한 교육프로그램이 없어 아쉬움.<경남 거제, 옥을석>
- 겨울 농한기를 이용하여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실시하는 영농교육 외에는 아무런 교육이 없는 실정임. 예를 들어 농촌마을 정보화 교육, 어린이보호 지도교육, 특목 성공사례 교육, 품목별 특작교육, 컴퓨터 기초교육 등이 있으면 좋겠음.<경남 김해, 김병철>
-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영농교육은 대체로 잘 되고 있다고 봄. 조금 더 욕심을 내어 본다면 농촌의 전통문화(짚공예나 한지공예 등)를 접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의식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또한, 교육이 젊은이들 위주가 아닌 마을회관에서 실시하여 어르신들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개발되었으면 좋겠음.<충북 괴산, 박종임>

○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영농기술 중심으로 교육 실시

-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작년 말부터 올해 3월 사이에 각 읍면에서 30차례 정도 특산물, 영농교육을 실시하며 소농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음.<경북 울진, 홍용표>
- 우리 지역 농한기 교육은 기술센터에서 벼농사, 고추, 부리벨리, 복숭아 등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음. 연초에는 특별한 교육은 없고, 올해 심을 고추묘목 씨앗뿌림 교육이 이달에 있을 예정임.<전남 화순, 나중주>
- 평생학습센터와 기술센터에서는 벼농사 위주로 고추, 수박, 약초 등 농작물 기술·관리교육을 하고 있으며, 마을회관에서는 기공제조, 노래교실, 천연염색 등 농업인 건강관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경북 영주, 김기원>
- 농업기관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해 농정 및 농업인 교육에 대해 바쁘게 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기보다 농한기 때 할 수 있는 교육을 개설해 주기 바람.<경기 남양주, 김용덕>

○ 마을회관을 활용한 찾아가는 다양한 교육서비스 요구

- 우리 면 단위는 1년에 1회 정도 교육을 하는데 재정상의 문제로 인원을 1개 마을에 6~7명 정도로 제한해서 실상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기도 함. 시 단위 교육은 이른 봄에 대학교수나 박사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2~3회 정도 과목별로 교육하고 있으나, 여전히 농촌은 도시보다 교육이 턱없이 부족함.<충남 서산, 서준석>
- 농한기에 농협이나 면사무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은 거리 관계상 자주 불참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앞으로 교육은 마을회관에서 실시하여 모두가 편하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전남 순천, 김종근>
- 우리 지역에서는 작목반별로 농촌교육을 직접 찾아서 듣는 때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영농교육이나 농협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고 있음. 하지만 지역의 농업규모가 워낙 작아서 다른 지역처럼 구체적인 품목별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음.<부산 기장, 최시훈>
- 농한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고품질 쌀, 고품질 양념 채소, 황토 감자, 웰빙 고구마, 친환경 유용미생물, 친환경 시설채소 등 기술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지역농협이나 시에서는 노래 교실, 난타, 풍물, 외부 초빙강사의 강의 등을 하고 있으나, 농번기에 해서 부진한 참여가 조금 아쉬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농한기에 실시 했으면 좋겠음.<충남 당진, 남도성>

□ 기타 농촌연장 여론

○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후속관리와 개선이 필요

- 농업용 면세유는 80% 선배정, 20% 추가배정으로 공급되는데 추가 배정량이 거의 2%도 채 되지 않고 해마다 줄어 들고 있음. 이것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세워두고 배정받는 경우와 기계도 없으면서 배정받는 농가가 많기 때문으로 보임. 농업 경영체 등록 면적과 농기계 보유 현황을 자료화하여 새로운 면세유 배정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농업생산에 진정으로 필요한 면세유 공급이 될 것임.<대구 달성, 곽동준>

○ 농업·농촌 관련 정확한 정보제공시스템 마련 요구

- 농촌은 해가 갈수록 고령화가 되어 가는데 후계농은 만 45세 미만자만 신청하게 되어 있었음. 이에 대해 농식품부에서는 후계농 신청 나이 선이 폐지되었다고 하고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령제한이 있다고 하여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 정확한 정보제공 시스템이 필요함.<강원 화천, 조영아>

○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농협의 유통부문 역할 확대 지적

- 날씨가 변덕을 부려 농산물 가격변동이 매우 심하였음. 소비자들이 즐겨 먹는 배추, 고추, 양파, 마늘, 시금치, 파 등 채소는 특히 가격의 등락 폭이 심한 편임. 농업인은 마음 놓고 생산·재배만 하고 판매는 지역의 농협이 해야 한다고 생각됨. 농협의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농축산물의 안정적 수집과 공급,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유통 부서를 증설하여 농작물의 안정적 판매로 소비자 가계 부담을 줄이면서 농업인의 소득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듬어 주길 바람.<경기 안성, 임충빈>

○ 피해보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보험상품 요구

- 농작물 재해보험(포도)은 농가에 실익이 없어 가입 부진으로 이달 말 종료되었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금년 겨울은 매우 춥다고 예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에 동해피해가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음. 실제로 2010년 동해로 포도나무가 전국적으로 약 30% 동사 된 사례가 있어 이에 따라 2011년에 동해에 대한 보상을 반영했으나, 올해에 또 이 사항을 삭제한 것은 농가를 위한 보험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실제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와 연계한 맞춤형 보험상품이 나와야 농가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임.<경기 시흥, 윤병국>

○ 고령화 농촌 실정 감안해 퇴비 등 소포장화 필요

- 요즘은 농촌 고령화, 국민의 식생활 변화 등에 따라 사과(15kg 이하), 포도(10kg 이하), 고구마(10kg 이하), 딸기, 복숭아 등 주로 과일이 중·소포장화되어 출하되는 추세임. 하지만 벼(40kg)포대, 유기질 퇴비(20kg)는 과거 무게포장대로 고집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이 무게를 포장하고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소포장화가 필요함.<경기 시흥, 윤병국>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1월 7일~11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김치지수 개발...약될까 독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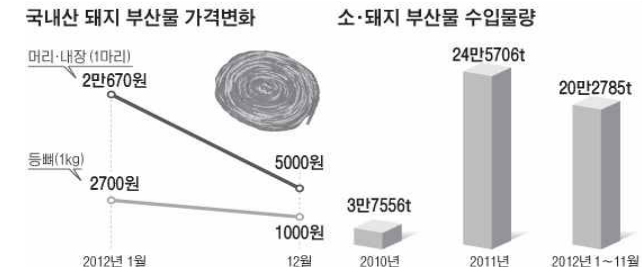
- 정부, 올해 안에 **김치 수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김치지수를 개발, 공표할 계획**. 배추 소비의 중심이 공장김치나 절임 배추 등으로 옮겨지면서 배추보다는 **김치의 수급조절에 물가안정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에 대한 김치업계의 엇갈린 반응. **김치산업의 전반적인 밑거름 ↔ 김치업계를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이에 맞춰 언론 등에서도 기존 배추 가격 상승이나 하락 등의 용어대신 김치 가격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여론 형성. ▲긍정적...김치지수에 배추나 파, 갯감, 고추 등 김치 재료의 전반적인 수급 동향까지 담을 수 있어 원료 수급에 대한 정보 및 김치 산업 현황 파악, ▲부정적...정부의 물가관리 대상이 돼 가공식품에 대한 압박, 김치업계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을 우려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1.10.)

□ 소·돼지 부산물 폭락 애결책 없나

- **소·돼지 부산물 값의 폭락**으로 삼겹살 등 인기부위 소비자가격의 오름세로 이어지면서 **소비자, 축산농가에 피해 전가가 예상**. 이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공판장·중도매인 등에 따르면 돼지 부산물가격은 ▲머리·내장 등 1차 부산물...한 마리당 (2012.1월) 2만670원 → (2012.12월 말) 5,000원(76%↓)에 거래, ▲지육 골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부산물인 등뼈 가격... (2012.1월) 1kg당 2,700원 → (2012.12월 말) 1,000원(63%↓), ▲장죽(뒷다리)... (2012.1월) 4,580원 → (2012.12월 말) 3,950원(16%↓), ▲소 부산물인 사골...거세우 기준으로 1kg당 1만 원 정도에 거래돼 최근 2년 중 최고값 1만8,000원 보다 44% 하락, 소꼬리도 1벌 당 18만 원 → 10만 원, 잡뼈는 1kg당 1만원 → 4,000원대로 각각 폭락. 이처럼 육류 부산물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것은 가정에서의 **부산물 소비 감소**와 지난해 구제역 사태 이후 국내산 부산물

값이 오르면서 **식당 등 소비처들이 부산물 식재료를 수입품으로 대체**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자료 : 농민신문(2013.1.7.)

□ 군급식 쇠고기 '전량 국내산' 대체

- 농협 축산경제, 13일, 국회예산심의회과정서 올해 **군 급식 쇠고기 100% 국내산으로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135억 원 확보. 기존 장병 당 1일 수입쇠고기 급식기준량이 9g으로 연간 1,400여 톤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1만 마리분의 소비시장 추가 창출로 **소값 안정,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실제 지난해 한시적으로 수입쇠고기를 육우고기로 대체한 결과 육우지육 도매가격이 2011년보다 31% 상승해 농가수취가격이 마리당 85만 원 가량 상승, 육우 사육농가 연간 총 680억 원의 소득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 앞으로 국방부 및 농식품부와 세부 급식기준량 및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3.1.9.)

□ 축산물 위에 잔류물질 정보 공개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 14일, **축산물에 잔류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잔류화학물질 30종**의 위해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소비자)에 공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프로파일 형식으로 제작. ▲대상 잔류화학물질...독성이 강해 사용 금지된 니트로푸란 및 축산현장에 사용량이 많은 테트라사이클린 등 동물용의약품 20종, 축산환경으로부터 축산식품에 잔류될 수 있는 엔도설판, 다이옥신

등 농약 및 환경오염물질 10종으로 현재 축산물에서 중점 관리되고 있는 물질들. ▲위해프로파일...물질의 특성, 동물 및 인체에 대한 위해성, 분석 방법, 노출량, 위해도 평가결과, 안전관리기준, 저감화 방안, 위해사고 이력 및 대처법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요약 정보(Outline)와 전문가 수준의 자세한 프로파일 정보(Full profile)가 함께 포함. 특히 오염 및 잔류 사례를 소개, 저감화 방안 제시하고 있어, **식육 및 유제품의 안전을 걱정하는 소비자,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가에게 유용하게 활용**

자료 : 농축유통신문(2013.1.7.)

□ 농업인 산재보험 제도 구상 착수

- 정부, **농업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제도 구상에 착수**. 현재 농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 이 제도가 도입되면 **농작업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농업인도 일반 근로자처럼 산재보험 수준의 보상 가능**. 최근 **직업성질환 조사 '안전보건센터' 운영 지침 공고**...보건센터는 정부 지원을 받아 농약중독증이나 고된 농사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같은 농부증을 체계적으로 연구, 올해 5곳 등 2017년까지 거점별로 10곳의 대학병원과 대형병원을 보건센터로 지정할 예정. 장기적으로는 농어업인 질환 전문병원 설립 검토

자료 : 농민신문(2013.1.9.)

□ 논에서 '밀·콩 2모작' 소득 ↑

- 농촌진흥청,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경남 사천시농업기술센터와 함께 2012년 경남 사천시 정동면에 **'밀·콩 2모작'단지** 7.2ha를 조성해 재배한 결과...**기존의 '밀·벼 재배' 대비 평균 90% 이상의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인들에게 좋은 반응. 최근 들어 **콩 가격호조와 밭작물 재배 장려 정책**에 따라 **콩 재배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은 늘고** 있지만,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영농규모의 영세화 등으로 단지육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농진청에 따르면 콩 평균수량은 10a(300평)당 224kg 정도지만, 250kg 이상의 농가도 28%나 되는 것으로 조사

자료 : 농민신문(2013.1.7.)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농림수산물 수출 실적

※ 본 자료는 2013년 1월 9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2012년 농림수산물 수출 80.1억 불, 전년대비 4.1% 증가」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총괄

- **2012년 농림수산물 수출은 80.1억 불로 전년대비 4.1% 증가**

- 부류별로는 **신선농식품 108억 불, 가공식품은 45.7억 불, 수산물 23.6억 불**로 각각 전년대비 **6.4%, 4.5%, 24% 증가**

<부류별 2012년 농림수산물 수출 실적>

구 분	'11년		'12년(잠정)		증감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3,479.4	7,691.3	3,915.1	8,007.8	12.5	4.1
신 선	331.2	1,015.2	355.6	1,079.8	7.3	6.4
가 공	2,461.5	4,368.3	2,850.9	4,566.0	15.8	4.5
수 산	686.7	2,307.8	708.6	2,362.0	3.2	2.4

단위: 백만 불, %

- '12년도 수출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국가 전체 수출액이 전년대비 1.3% 감소('12년 5,482억 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은 4.1% 증가로 성장세를 유지
- **수출액 1억 불 이상 품목('11년 12개 → '12년 13개)과 1억 불 이상 수출국('11년 11개국 → '12년 14개국) 증가**

□ 부류별

- **(신선농산물) 전년대비 파프리카(34.8%)·단감(36.5%)·김치(1.9%) 등은 증가한 반면, 인삼(△20.%) 등은 부진**

- (파프리카) 국내 생산량 증가와 최대파프리카 시장인 **일본 시장규모 확대**로 수출 증가
- (단감) 상반기 저장단감 수출 증가, 금년도 생산호조 및 홍콩, 필리핀, 태국 등 **신규시장 확대**로 수출 증가
- (김치) 미국, 홍콩, 대만 시장 내 신규 입점 및 한인마켓 매장 수가 확대 되었으나, 일본 소비 감소로 수출 증가
- (인삼) 중국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수출 부진
- [가공식품] 전년대비 **조제분유(57.6%)·비스킷(11.3%)·귤(10.3%)** 등은 **증가**한 반면, **막걸리(△30.0%)** 등은 **감소**
 - (조제분유) 중화권내 한국산 선호도 증가와 **중동지역 신규시장 개척 노력**으로 수출증가
 - (비스킷) 프리미엄 과자를 중심으로 일본,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확대되어 수출증가
 - (귤) 중동시장 경기악화에도 불구하고 對UAE와 베트남 수출이 각각 25.6%, 65.2% 증가한 결과 전체실적 증가
 - (막걸리) **일본 주류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른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수출 부진**
- [수산물] 전년대비 **참치(53.3%)·김(43.1%)**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오징어(△34.0%)·굴(△31.6%)** 등은 **큰 폭으로 하락**
 - (참치) 어획량 증가 및 단가상승, 아세안 지역 수출호조, 인도양 조업선 신규투입 허가 등의 긍정적인 요인들에 힘입어 사상 최초 6억 불 수출 달성
 - (김)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관세철폐와, 가공용·식재료용 마른김에 대한 한국산 수요증대로 인해 2억 불 수출 달성
 - (오징어) 원양 및 연근해안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수출가격 하락**으로 **수출액 감소**
 - (굴) 한국산 패류의 대미수출 중단으로 수출 부진

□ 국가별

- **미국(10.7%), EU(15.6%), ASEAN(15.6%) 등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중화권 수출은 부진**
 - (일본) 전년대비 0.7% 증가한 23.9억 불 달성
※ 호조품목: 참치, 파프리카, 김 부진품목: 음료, 김치
 - (중화권) 전년대비 △7.3% 감소한 12.8억 불 달성
※ 호조품목: 설탕, 커피조제품 부진품목: 인삼
 - (미국) 전년대비 10.7% 성장한 6.6억 불 기록
※ 호조품목: 귤, 배, 오징어
 - (EU) 전년대비 15.6% 성장한 4.2억 불 기록
※ 호조품목: 참치, 오징어, 김
 - (아세안) 전년대비 15.6% 증가

<국가별 2012년 농림수산물 수출 실적>

단위: 백만 불, %

구 분	'11년	당월실적(12월)			누계실적(1~12월)		
		'12년	'11년	증감률	'12년	'11년	증감률
전 체	7,691.3	675.2	754.4	△10.5	8,007.8	7,691.3	4.1
일 본	2,374.2	192.0	222.4	△13.6	2,389.6	2,374.2	0.7
중 국	1,380.0	113.2	141.0	△19.7	1,279.0	1,380.0	△7.3
미 국	599.8	57.8	51.3	12.7	664.1	599.8	10.7
러시아	242.7	20.2	18.0	12.2	259.2	242.7	6.8
홍 콩	305.5	26.8	34.2	△21.7	297.2	305.5	△2.7
대 만	261.0	25.4	32.8	△22.6	253.8	261.0	△2.8
A S E A N	1,031.9	100.9	97.4	3.6	1,193.1	1,031.9	15.6
E U	362.9	37.5	31.3	20.0	419.5	362.9	15.6
기 타	1,133.3	101.4	126.0	△19.5	1,252.3	1,133.3	10.5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